그때 그 시절 第 18 回

舊韓末의 齒科業界에 對하여

殷 仲 基

◇…… 舊韓末의 齒科醫業은 日本人으로부터 習得하여 비로소 輸入된 것……◇
◇……은 確實하나 이것은 다만 새로운 齒科醫學인것 뿐으로 이와 비슷한……◇
◇……行爲는 李朝時代부터 있었으며 主로 拔齒專門이었다 <編輯者註>……◇

現今朝鮮에 있어 우리 齒科醫界는 古時에 比하여 進步發展을 이루어 實로 燦爛한바 있으나 우리 가운데는 現在의 齒科醫學界만을 아는 사람이 많고 過去에 있어 朝鮮의 齒科醫學界가 如何한 狀態에 있었는지를 아는이가 적어 朝鮮에 있어서의 齒科的 醫業의 發端을 追跡해 보는것도 興味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이를 아는데로 記述 코저한다.

朝鮮의 齒科醫界는 지금으로부터 27年前(1931年에 이글을 執筆했으니까 1908年代가 되겠음) 大韓帝國政府時代 即 大韓 光武 11年에 齒科的産業이 始作되어 半島中央의 漢陽城中에 朝鮮齒科醫學界의 始祖인 故 崔承龍氏에 依하여 나타났다. 氏는 京城의 鍾路通에 「齒科專門」이라고 쓰인 看板을 달고 木製의 簡單한 椅子와 極히 少數의 機械(技工器具 및 2,3本의 拔齒器)를 가지고 開業했다. 藥品으로는 「페놀감파」와 沃度丁幾, 硼酸等程度였다. 崔承龍氏는 이 技術을 어떤 日本人으로부터 배웠다고 했지만 이點은 유감스럽게도 詳細하게 알길이 없다. 그가 開業한지 1年사이에 故金漢杓氏가 開業했다. 다음으로는 金漢杓氏에게서 배운 故 申正休氏가 開業했다. 이後 또 한해가 가는 동안에 이와같은 齒科醫業者가 雨後竹筍처럼 나타남과 동시에 日本人도 多數 건너왔기에 大韓政府는 그 對策으로서 처음으로 齒科醫業者에게 營業屆를 내게 하였다. 이때는 아직 外國人에게 營業을 許可하지 않았기 때문에 日本人은 韓國人을 고용하여 그의 名儀로 秘密히 營業했다.

이와 같은 時代에는 韓國社會가 齒科醫業者에 對하여 優待하고 몹시 尊敬했다. 더구나 그당시 營業狀態는 現今과 別로 變하지 않았기 때문에 相當한 收入도 있었고 治療는 金冠, 고무 床義齒, 程度이고 拔齒는 거의 하지 않았다.

그때는 拔齒하기 爲한 痲醉藥은 全혀 사용하지 않았고 膿漏齒가 動搖하고 있는것을 拔齒하였다.

補綴로서는 드물게 Bridge도 있었으나 現今의 架工齒調製와는 현저히 틀려 Bridge의 支臺는 全部 金冠支臺를 採用하고 그 兩方의 支臺金冠을 連結하기 위해 金板 또는 金線을 嵌入 鑞着하여 그 金板내지 金線上에 陶齒를 排列하여 蒸和고무를 蒸和하여 固着한 것인데도 그 當時는 相當히 신기로운 새로운 發明이라고 해서 많은 歡迎을 받었다.

要컨데 韓帝時代의 齒科醫業은 日本人으로부터 習得하여 비로소 輸入된 것은 確實하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齒科醫學의 一部일 뿐이지 이와 비슷한 行爲는 李朝時代부터 있었다고 傳해지고 있다. 그것은 主로 "拔齒專門"이었다.

「이글은 1931年 朝鮮之醫界 第2卷 第12號에 게재된 것을 번역하여 대한치과연구회지 제 1 호 1960에 收錄된 것을 다시 옮겨 놓는다. 또한 筆者인 殷仲基先生님은 1930年 京城齒科專門學校를 卒業하시고 全南大 醫大 齒科科長을 歷任하시고 현재는 전남 광주시 궁동 7에서 우송치과 의원 원장으로 계시다」